

##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sup>1)</sup>

### - 플라톤의 『국가』에 기초한 탐색 -

양 은 주(광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임 현 정(법성포초등학교 교사)

---

#### 《요약》

---

본고는 고정된 교과학습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어린이의 삶이 황폐해지는 현실을 문제로 의식하며, 초등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철학적으로 탐색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가능성을 밝혀주는 철학적 토대의 한 사례로 플라톤 사상을 탐구하였다. 『국가』에 나타난 시가(詩歌)를 통한 초기교육과 예술에 관한 견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예술이란 진정한 실재의 모방으로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각적 친근성과 참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기본성향을 발달시켜준다. 둘째, 초등교육의 목적은 이성적 인식 이전에 미적인 체험에 기반을 둔 '절제'의 덕을 함양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질서와 균형 감각의 형성을 의미한다. 셋째,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 선정을 위해서는 이상성, 구체성, 서사성, 단순성, 통일성의 준거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해 플라톤 사상은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며, 조화와 균형의 예술적 원리가 간과되는 초등교육 실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청된다.

주제어 : 초등교육의 성격, 플라톤, 모방으로서의 예술, 시가교육, 예술적 교육

---

## I. 서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은 간과한 채 고정된 교과학습 위주로 치닫는 경쟁적 교육열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일상과 어린이의 삶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상황은 중등교육에 비해 한층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실을 문제로 의식할 때, 공교육의 첫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초등학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떤

---

1) 이 논문은 2008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현장교사연계공동연구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것이라야 하는지를 되묻게 된다. 초등교육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 구별되는 어떤 특수한 목적과 과제를 지니는가? 초등교육의 고유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지닌 내용과 방법을 선별하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근래에 초등교육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가운데에는 특히 초등교과교육의 전문적 세분화나 교수학습 방법의 체계화를 통해 초등교육과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해 보인다(윤근영, 2007; 진성희 · 나일주, 2009).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교육의 정체성 정립의 과제를 인간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풀어보려는 시도 또한 조금씩 늘고 있다(박종국, 2008; 엄태동, 2003; 정재걸, 2003; 정혜영, 2001). 현재 우리의 초등교육 현실에서는 실제적인 방법적 모색에 앞서 초등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캐묻는 철학적 탐구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인간과 교육의 전체적인 이해 안에서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어떤 특수한 성격을 지녀야 할까? 이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근대 아동중심사상에서부터라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고대 희랍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논한 플라톤 이래 지금까지 많은 교육사상가들이 당대의 심리학적 이해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견해를 전개해왔다.<sup>2)</sup> 현대 초등교육과정에 빈번히 나타나는 목표 요소를 통해 꼽아보자면, 건강한 신체와 감각능력,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 지적인 기초 개념과 기능, 사회성과 시민의식, 민주적 가치, 전통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흥미에 따른 개성과 적성, 미적 감각과 창조적 자기표현능력 등, 초등교육에 요청되는 교육적 과업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원성과 복잡성에 주목할 때, 중등이나 고등교육의 성격과 구별하여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란 쉽지 않지만 한결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권동택, 2003).

초등교육의 정체성에 관해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고 공동 탐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현재 관심을 모으는 한 가지는 ‘예술적’ 성격이다.<sup>3)</sup> 여기서 ‘예술적’이라는 의미

2)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시기에는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교육이 소수의 지배계층 자녀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에 제도화된 초등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초등교육’이라는 개념을 근대적인 형식교육에 한정하여 쓰면서, 전근대시기에 대해서는 초기(단계)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육’이란 용어를 교육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체계적인 교육 구상의 첫 단계 교육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근대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서양 초등교육의 제도적 형식과 문제에 대한 논의는 Brubach(1966, pp. 362-392) 참조.

3) 교육과 예술의 관련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역사는 오래지만, 특히 근대 미학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예술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최근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에서 미학적 접근의 의미를 다각도로 탐구하고 교사를 예술가에 비유하거나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예술과 같다고 규정하는 교육철학적 논의들이 활발하다(양은주, 2007; 한명희, 2002;

는 음악, 미술, 무용과 같은 순수 예술 장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무언가를 감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아름다움의 정서가 생겨나는 인간 경험의 특질을 포괄한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란 단순히 예술교과의 비중 확대, 예술적 창의성 교육 강화, 일반 교과교육에서 예술교과의 통합적 활용 등을 주장하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미적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예술적 성격이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요청되는 것이지만, 신체 감각과 정서의 통합적 발달이 우선시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초등교육이 예술적이라야 하는가는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는 미학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초등교육과 예술을 관련짓는 여러 견해를 가운데, 특히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간과되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의식하며 재조명해봄직한 사상은 플라톤이다. 그의 대화편 『국가』에서 수호자 양성 교육의 첫 단계로 제시한 시가(詩歌, mousike)와 체육(gymnastike) 교육에 대한 논의 가운데 특히 시가교육론은 초기 단계 교육의 예술적 성격과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독특하게 밝혀준다.<sup>4)</sup> 플라톤의 초기교육 구상은 물론 전근대시기 계급사회에서 철인통치자에 의한 이상국가를 지향한 것으로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제도화된 초등교육과는 분명히 맥락을 달리한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성을 인정하며 재해석해보면, 현대적 맥락에서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 이해를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플라톤 교육사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감각적 현상 세계 너머의 이데아 이론이나, 최고선의 인식에 의한 지덕일치설, 철인통치자 교육론 등에 관심을 둔 반면에, 예술적 성격의 초기 교육론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편이다. 그의 시가교육론이나 예술론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흔히 현대적인 분과구분에 따른 음악교육론으로 또는 미학적 관점에서 모방설의 사례로 국한시켜 다루어지곤 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 사상을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과 의미를 밝혀주는 사례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가를 통한 초기교육과 예술에 관한 플라톤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Hansen, 2005; Shusterman, 2003).

- 4) 현대적인 초등교육을 전근대시기의 경우와 분명히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플라톤이 제시한 초기 단계 교육 구상을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으로 명명하지 않고 ‘초기단계(elementary stage)’로 구분지어 표현하기도 한다(Nettleship, 1989). 각주2)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플라톤의 초기교육 구상이 시대적 차이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는 입장에서 포괄적 의미의 ‘초등교육’이라 지칭한다. 플라톤 교육론에 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Brumbaugh & Lawrence(1963)와 Curtis(1975)에서도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으로 지칭한 사례가 나타나며, Curtis는 초기교육(early education), 초기훈련(early training)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의 본질을 ‘모방’으로 규정하는 플라톤의 미학적 관점 해석을 둘러싼 쟁점을 통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에 내재한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볼 것이다.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초기 단계 교육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예술적 성격의 초등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목적 및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 구성의 원리를 분석할 것이다.

## Ⅱ. 모방으로서의 예술과 교육적 의미

인류 역사에서 예술적인 산물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지만, 현재와 같은 예술 개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나중의 일이다. 사실 순수하게 미적인 창작과 감상 활동에 한정된 영역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의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부터다. 그 이전까지 오랫동안 예술은 실용적인 기술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인간의 포괄적인 제작 활동의 일부였다. 예술의 어원, 라틴어 *ars(art)*에 해당하는 고대 희랍의 *technē*란 당시에 학술이나 기술 또는 논쟁술이나 변증술 등에서 쓰이듯이 어떤 술(-術)로서, 특정 전문 영역의 지식 및 재간, 솜씨, 방책 등을 포함하는 의미였다(국가1, 332c, 각주26)<sup>5)</sup>. 『국가』에서도 테크네는 목공이나 수공기술에서부터 의술이나 시작(詩作, *poiesis*)술 등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특정한 종류의 전문지식과 기술 일체를 가리키며 쓰인다(국가4, 438d). 이런 의미에서 고대 희랍시대에 예술적 활동이란 테크네의 일부로서 총체적인 인간 삶의 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체적 삶에서 실용적 필요뿐 아니라 지적인 탐구나 도덕적 실천과도 근원적으로 관련을 맺는 통합적 의미를 지녔다.<sup>6)</sup> 플라톤의 예술론도 고대 희랍의 테크네 개념에 내포된 통합적 의미 맥락을 염두에 두며 이해되어야 한다.

예술의 본질에 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견해는 모방(*mimesis*)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에게 예술은 모방술, 곧 닮도록 그려내는 기술이요, 예술품은 모방물로서 실재가 아닌 가상이다. 플라톤의 모방으로서의 예술론은 대표적인 미학이론 중 표상론의 기원이 되었고, 르네상스 이래 사실주의 예술사조로 계승되면서 모방의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5) 본 논문에서는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를 빈번히 인용한다. 이 문헌(주석 포함)에 대한 이하의 인용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권수와 스테파누스 쪽 수(*Stephanus pages*)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국가』 제1권 332c, 각주26에서 인용한 것임을 뜻한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를 재료(*matter*)에 형식(*form*)을 부여하는 기술이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의 정연한 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론적 사유(*theoria*)와도 윤리적 실천지(*phronesis*)와도 구분 짓고 있다(Randall, 1960, pp. 272-293). 그는 인간의 제작 활동이 곧 자연의 생산 과정의 모방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테크네는 자연이 부여한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통합적 의미의 테크네 개념을 제시해준다.

(김혜숙·김혜련, 1998; 임영방, 2003; Shepard, 2001). 표상론의 관점에서 예술이란 실제 세계 ‘있는 그대로’를 감각적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모방 혹은 표상하는(re-present) 인간 활동으로서, 실재하는 대상을 얼마나 훌륭하게 모방하여 재현해내느냐가 예술미의 척도가 된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놓이는 표현론과 형식론의 관점에서는 예술의 본질을 각각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정서적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서 찾거나, 전체 안에 부분들이 조화로운 통일적 형식을 이루도록 지적으로 구성하는 데서 찾는다. 이렇게 대비해볼 때, 표상론으로 전개되는 플라톤의 미학적 입장에서 예술의 본질은 주관적인 감성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지적 형식의 창조적인 구성이 아니라, 참된 실재를 있는 그대로 직접적 감각에 와 닿도록 하는 모방적 재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에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의 예술론은 상반된 해석을 낳으면서 학술적 쟁점이 되어 왔다.<sup>7)</sup> 사실 모방이라고 하면 외관의 흉내내기와 같은 비지성적 의미가 연상되기에, 예술가의 천재적 영감이나 창조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모방을 예술의 본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플라톤 자신이 직접 모방으로서의 예술을 비판한 점에서 모방 이론은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견해로 읽힐 소지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넘어서 플라톤의 예술론에 대한 일관된 해석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국가』 10권에 제시된 그의 예술 비판을 따라가 보자(국가10, 597b-598c). 비판의 요지는 예술이란 실재를 모방한 현상의 모방술로서 진리에서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를 세 가지 종류의 침상에 비유해 설명한다. 개념적으로 떠올려지는 침상과 실제로 사용하는 침상과 그림으로 그려진 침상, 이 각각은 구분되면서 또한 모방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본질 창조자’로서 신은 ‘참으로 침상인 것 자체’(이데아)를 만들고, 이를 모방하여 ‘장인이며 제작자’인 목수는 ‘어떤 한 침상’(실물)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는 ‘모방자’로서 화가는 ‘침상 그림’(모방물)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화가가 그려낸 모방물, 곧 예술품은 참으로 실재하는 이데아(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현상들(아름다운 사물들)을 다시 모방한 것이 된다. 그렇기에 거울에 비친 상을 보이는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예술이란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아이들과 생각 없는 이들의 감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헛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7) 모방으로서의 예술 비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국가』 10권이며, 여기서 예술적 논의의 주요 소재는 시가(mousike)와 회화, 이를 만드는 시인과 화가로 한정된다. 하지만 희랍시대에 시는 노래의 형태로 음송되고 연극으로 재현된 점에서 플라톤의 시가와 회화에 대한 논의는 문학, 연극, 음악, 회화 등 예술 일반에 관한 견해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적 시도들 간의 의견 불일치와 혼란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예술 비판론에 대한 서승원의 논문 서론에서 충실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1992, pp. 61-65). 그는 플라톤이 예술에 대하여 칭송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양자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모방’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10, 598c; 임영방, 2003, p. 35). 이러한 직설적인 비판 때문에 플라톤 예술론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그의 모방이론 자체는 종종 예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견해로 문제시되곤 한다(고경화, 2004; 오운심, 1996). 즉, 그의 모방이론은 예술을 구체적인 감각적 수준에서 단순한 흉내내거나 고지식한 모사 기능으로 간주하는 견해로서 추상적인 정신적 수준의 심미적 가치를 부정하는 한계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예술의 여신 무사(Mousai)와 샵포(Sappho)를 사랑했고, 예술이 완전한 미(美) 자체에 다가가는 정도에 따라 막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음을 입증하기도 어렵지 않다. 우선 『국가』 2권과 3권에서 보면, 우아하고 절제된 시가를 눈과 귀로 접하는 예술적 경험은 이성적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올바르게 좋은 것을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영혼을 정화한다는 견해가 전개된다. 즉, “시가에 밝은” 교양인, 현대적 의미에서 예술적 감각이 도야된 사람이라야 보다 고귀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통치에 걸맞은 최선의 수호자의 특징을 “시가와 혼화된 이성을 갖춘 자”로 정의 내린다(국가8, 549b). 이것은 모방적 예술을 통한 감각적 경험이 이성적 사유 활동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자의 조화로운 통합적 발달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적극적 의미로 읽힌다. 또한 미와 사랑을 논하는 『향연』에서는 인간 영혼이 감각적으로 와 닿는 여러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 최종적으로는 신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관조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향연, 208c-212a). 여기서 육체적인 감각적 아름다움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가장 낮은 단계로 다루어지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출발점으로 긍정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플라톤에게 모방으로서의 예술은 참된 실재를 향한 영혼의 단계적 오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방 자체가 비판적인 폄하의 이유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가 비판하듯이 모방적 예술 행위를 문제시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플라톤 철학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재해석해본다면, 그것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예술가가 모방해야 마땅한 대상, 즉 완전한 질서와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그려내지 못하는 문제와, 이로써 사람들이 모방물 그 자체를 참된 실재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상위의 존재를 향한 영혼의 오름길이 가로막히는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예술 비판은 모방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방술을 지닌 당대의 예술가들과 모방물을 잘못 다룬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승원, 1992). 즉, 한편으로, 시인과 화가들이 현란한 외양만을 모방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버려놓는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무지한 이들이 모방물들에 대해 감각적 탐닉에 그칠 뿐 보다 고귀한 즐거움을 향한 고양의 계기로 선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예술 비판의 초점이 모방 그 자체에 있지 않다면, 플라톤에게 좋은 예술이란, 곧 모방으로서의 본질적인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까? 『국가』 10권에 나타

난 비판적 논점들을 잘 따져 읽음으로써 역으로 좋은 예술을 판단하는 준거에 대한 그의 긍정적 입장을 밝혀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가 화가나 시인의 모방술을 문제 삼았던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로 그는 예술가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모방할 뿐 “본질에 있어서 그것인 것 자체를 모방하려고 꾀하는 것”이 아닌 점을 비판한다(국가10, 598a).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호메로스와 같은 시인이 지은 비극을 사례로 들면서, “‘실재’를 상대로 있는 그대로 모방하게 되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현상)을 상대로 보이는 그대로 모방하게 되는가? 그것은 ‘보이는 현상’의 모방인가, 아니면 진실(진리)의 모방인가?”를 캐물으며, 당대의 화가나 시인이 모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정한 실재가 아니라 가시적인 현상들임을 꼬집고 있다(국가10, 596b).

고대 희랍시대의 예술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서승원(1992, p. 80)은 여기서 플라톤이 비판하는 것은 “미혹적인 유사(deceptive semblance)와 극적 효과(Theatrical effect)를 지향하여 지성이 아니라 감각에 어필하는 당시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스트하고 세속적인 경향”이었다고 해석한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며 현란하고 다채로운 감각적 자극만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을 겨냥한 것인데, 사실 어느 시대에도 현재 우리 시대에서도 가능한 비판이다. 이러한 첫째 비판으로부터 역으로 좋은 예술의 준거를 추론해보자면, 플라톤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쉽게 보이지 않는 참된 실재를 직접적인 감각에 와 닿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의 모방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예술이 눈과 귀에 직접 호소하는 감각적인 무엇임은 인정하지만, 훌륭한 예술이라면 익숙한 외양이 거울에 비쳐진 듯한 단순한 모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가가 내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실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을 보이게 만들어서 영혼을 고양시켜줄 때라야, 그런 방식으로 감각적인 외형에 정신적인 가치가 스며드는 것일 때라야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술 비판은 첫째 이유와 인과적으로 관련되는데, 예술가가 자신이 모방하여 그리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거나 나쁜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자(知者)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국가10, 601a-602b). 이에 대해 플라톤은 고삐나 재갈을 그리는 화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고삐나 재갈을 제작하는 대장장이나 가죽 재단사는 적어도 ‘바른 의견(doxa)’을 지닌 자이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말타는 사람은 ‘지식(episteme)’을 지닌 반면에, 그것들을 닮도록 그릴 뿐인 화가의 인식은 어느 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라는 것이다.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들에 대한 훌륭한(아름다움) 및 나쁨과 관련하여 알게 되지도 못하며, 옳게 판단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예술가의 무지를 비판한다(국가10, 602a). 결국 화가나 시인은 자기가 그리고 짓는 것들에 대해 정통한 지식이나 바른 의견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단지 색채와 형태들로만 관찰할 뿐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한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을 모방”한다고 꼬집는다(국가10, 602b).

이러한 비판에서 우리는 플라톤이 기본적으로 예술을 과학이나 철학 등 학문적 지식과 구별 짓고 후자를 보다 상위에 두는 입장임을 읽을 수 있다. 시인이나 화가의 목적은 아름다움의 모방적 재현이지 지식 곧 참된 실재의 인식은 아니라는 것, 예술가의 직관적 통찰이 훌륭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 자체가 학문적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념론자로 잘 알려진 플라톤의 입장임을 분명하다. 그렇지만 또한 그 바탕에서 참된 실재를 모방하려는 예술가라면 스스로 지식을 갈망하고 철학적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에 서승원(1992, pp. 73-78)의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여보면, 예술가의 무지에 대한 비판은 당시 일반대중들이 호메로스나 다른 시인들을 모든 존재와 인간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진정한 ‘교사’로 받아들였던 현실상황의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하여 좋은 예술의 둘째 준거를 추론해보자면, 플라톤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예술가가 참된 진리의 인식에 접근하려는 노력에 기초한 모방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가에게는 진리 탐구 자체가 일차적 목적은 아니지만 부단히 자신이 그려내는 것들이 참된 진리에 다가가도록 인식의 지평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다 고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모방이라면 이성적 진리 탐구의 길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적 인식에로의 길을 준비시켜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진리에 깃들인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인식의 지평을 상승시켜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셋째 비판은 둘째 이유에 뒤따르는 것인데 예술가에게 지식과 바른 판단이 결여된 탓에 실제 인간 삶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로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국가10, 599c-600e). 이 점에 관해 플라톤은 오래도록 훌륭한 시인으로 칭송받아온 호메로스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판단해보건대 그의 시에서 중대하게 언급되는 “전쟁과 전략, 나라의 경영, 그리고 인간 교육”과 관련해서 호메로스가 실제로 동시대인들을 이롭게 하지는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되묻는다. “만약에 호메로스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앎을 지닐 수 있는 처지에 있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교육하여 더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는 많은 동료들 만들어 갖게 되어, 이들한테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었을 것이라 자네는 생각지 않는가?”(국가10, 600c).

이와 같이 예술의 쓸모를 문제 삼은 마지막 비판에서는 예술이 현실 삶에서 지닌 실제적 효용성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를 읽을 수 있다. 모방으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선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정치적 실천 행위와는 구별되며, 일차적으로 전쟁이나 국가경영 등 인간 삶의 대소사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비판 이면에는 예술이 정치적 실천 행위와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간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예술가가 참된 인식을 추구하는 정도만큼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되고 이로써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고양시켜주는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비판은 당대의 예술이 실제적



인 삶의 세계를 개선하고 인간 교육에 기여하는 과업으로부터 단절된 채 감각적 즐거움을 탐닉하는 데 그치는 현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좋은 예술의 셋째 준거를 유추해 보자면, 플라톤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사람들을 보다 고귀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쉽게 보이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좋은 성품으로 이끌고 공동체의 조화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실제 인간 삶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플라톤에게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요, 예술품은 실재가 아닌 가상이다. 예술적 모방 행위는 직접적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요, 일차적으로 지적인 인식이나 윤리적 실천 행위와는 구별되는 인간 활동이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이란, 눈과 귀에 직접 와 닿는 사실적 묘사가 돋보이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모방하는 아름다움의 본(本)은 현상 너머의 본질적 실체라는 점에서 형상 세계에 ‘관여(koinoia)’하는 인간 활동이다.<sup>8)</sup> 따라서 예술가가 감각적 현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내면적 진리를 추구하는 정도만큼 또한 감상자가 그러한 참된 예술품을 바르게 알아보고 향유하는 정도만큼 예술은 참되고 선하고 올바른 가치를 향해 인간이 상승해가도록 준비시켜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지닌다. 플라톤에게 훌륭한 예술품은 외형을 현란하게 모방하여 감각적 감흥에만 머물게 하는 모사품과 구별되며, 아름답게 보이는 것 너머에 그것이 닮은 본질적 형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키워줌으로써 보다 고귀한 훌륭함을 향해 가는 오름길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 Ⅲ. ‘절제’의 덕과 초등교육의 목적

지금까지 플라톤에게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모방·재현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참된 실재의 인식과 공동의 좋은 삶을 위한 바탕을 형성해주는 교육적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플라톤은 감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영혼이 어릴 적부터 훌륭하게 모방된 예술품들을 접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들에 익숙해지면, 그러한 친근성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다 상위의 존재를 갈망하는 기본성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이론적 논거를 통한 개념적인 세계 인식에 이르지 못한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먼저 감각적으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예술과 초등교육의 관련성은 보다 근본적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플라톤의 전체적인 교육 구상 가운데 시가를 통한 초등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고

8) ‘관여(koinoia)’라는 개념은 ‘결합(joining with ~)’, ‘참여(sharing in ~)’ 등으로도 해석된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관여(koinoia)’는 형상과 사물간의 결합, 이론과 실천의 결합, 형상들끼리의 결합, 인위적인 결합, 자연적인 결합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술적 논의 맥락에서는 형상과 사물들간의 인위적인 결합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종현, 2001, p. 185).

자 한다. 흔히 플라톤의 교육론이라 하면 최고의 진리에 이른 철인통치자가 될 사람을 선발하여 기르는 ‘엘리트주의’ 교육을 떠올리곤 한다. 이를 감안할 때, 과연 현대적인 초등교육의 공통 전제인,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교육이라는 특성이 플라톤의 초등교육론에서 유효한지의 문제도 여기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올바르게 다스려지는 이상적인 국가는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 대화편 전체에 걸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국가4, 424a). 그런데 최고선의 인식을 향한 영혼의 오름은 쉽지 않기에 단계적인 교육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sup>9)</sup> 플라톤이 제안하는 순차적인 교육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를 각각 초등, 중등,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읽어낼 수 있다(Brumbaugh & Lawrence, 1963, pp. 39-46).<sup>10)</sup> 초등교육과정은 시가와 체육, 간단한 수·셈과 읽기, 쓰기 등을 가르치며 감각적 경험을 통해 영혼의 조화로운 바탕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이다. 중등 교육과정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등의 학술적 교과 공부를 통해 추론적 사유에 의해 파악되는 질서를 향한 지적인 관심과 능력을 일깨워주는 전환 단계이다(국가7, 521d-531c).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정은 철학적 훈련에 해당하는 변증술(dialectike)을 통해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최고의 인식에 이르도록 이끄는 완성 단계이다.

최고선의 인식이라는 궁극적 목적에만 주목할 때 간과되기 쉽지만, 플라톤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특히 시작 단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네는 모든 일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이건, 어리고 연약한 것에 있어서 는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건 그때에 제일 유연성이 있고, 또한 누군가가 각자에게 새기어 주고 싶은 인상이 제일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일세. (국가2, 377b)

이와 같이 어리고 연약하며 유연한 아이들에게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새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초등교과로서 시가와 체육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플라톤 시대 이전부터 고대 희랍시대의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9) 최고선의 인식을 향한 영혼의 오름 과정에 대한 플라톤의 논의에는 미학적 맥락의 모방과는 구분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맥락의 ‘모방’ 개념이 나타난다. 플라톤의 ‘모방’ 개념의 다양한 의미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속 논의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7권의 동굴 비유에서 모방의 관계로 위계적으로 구성된 존재 영역들 가운데 그림자와 같이 더 쉽게 보이는 하위의 것들로부터 단계적인 익숙해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참고로 새길만하다(국가7, 515b).

10) 초등교육과정은 국가 2-3권에서, 중등과 고등교육과정은 7권에서 논의되는데, 이러한 구분과 상응하게 플라톤의 교육과정 구상은 두 단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명준(2001, pp. 79-90)은 현상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교육 혹은 보편교육과 형상계에 해당하는, 이성적 능력을 갖춘 소수를 위한 최선자의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Nettleship(1989/1935)은 영혼의 양육을 위한 초기 교육(elementary stages)과 진리로 영혼의 오름을 위한 고등 교과(higher studies) 단계로 나누어 다룬다.

체육과 음악과 문학적 요소가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다(Reble, 1951/2002, pp. 23-49). 다시 말해, 플라톤이 이상 국가의 교육 구상으로 기존의 교육 전통에 없던 전혀 새로운 교육과정을 창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초등교육 사상이 지닌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사적 맥락 속에서 당대의 교육 실천적 관행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새로운 의미로 재정립하려는 시도였나를 따져 읽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플라톤이 시가와 체육 두 가지 교육의 “혼화(混和: *krasis*)”를 강조하고 특히 시가교육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외적인 명예를 위한 남성적 힘과 영웅 정신이 지배적이었던 고대희랍의 귀족사회에서 “교육과 생활형식의 핵심적 구성”을 이루며 중요시되던 부분은 “체육적 요소”였던 현실과 대조적이다(앞글: 25). 또한 흔히 “체육으로는 몸(신체)을 보살피되 시가로는 혼(정신)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일상적 통념과 달리, 플라톤은 “무엇보다 혼을 위해 양쪽 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여겼다(국가3, 410b). 즉, 시가교육이 과도하여 혼(정신 혹은 마음)의 온순함이 나약함으로, 체육교육이 과도하여 혼의 기개가 사나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혼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통일된 목적을 지향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건강한 몸이 훌륭한 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훌륭한 혼이 저의 ‘훌륭함’에 의해서 몸을 최대한 훌륭한 것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신적 인격적 단련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했다(국가3, 403d).

그렇다면 시가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혼의 훌륭함, 곧 영혼의 조화와 균형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세 계층인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특성에서 유추하여, 인간의 영혼(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혼이 추론하고 생각하는 “헤아리는(이성적인) 부분(*to logistikon*)”과 혼이 발끈하고 분개하는 “격정적인 부분(*to thymoeides*)”과 혼이 사랑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욕구적인 부분(*to epithymetikon*),” 즉, 이성과 감정과 욕망이라는 세 가지가 그것들이다(국가4, 435c-444a). 이들 각 부분에 고유한 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때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에 이르며, 세 부분이 몸의 머리와 가슴과 배와 같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때 영혼의 올바른 곧 개인적 삶에서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고 본다.

여기서 영혼 전체를 구성하는 세 기능이 완전성에 이르러 조화를 실현한 상태란 물론 철인통치자로 표현되는 교육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상이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시가를 통해 추구하는 영혼의 조화는 최종적 이상과는 구별되는 의미로서, 무엇보다 영혼(마음)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욕구적인 부분이 올바르게 다스려진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욕구적인 부분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 혼은 이롭지 못한 욕구들로 가득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을 지배하여 혼 전체를 뒤집어엎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국가4, 442b). 반면에, 욕구적인 부분이 잘 다스려져서 ‘절제’의 덕이 길러지면, 혼의 격정적인 부분은 유순하게 이완되어 ‘용기’의

덕을 쌓아가고, 헤아리는 부분은 더욱 훌륭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지혜’의 덕을 기르도록 조화로운 토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에게 초등교육에 고유한 목적은 욕구를 올바르게 규율하는 ‘절제’의 덕을 복돋워, 지혜를 사랑하는 사려적인 ‘온화함’과 이치에 어긋남에 대해 격하는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초등교육에서 시가와 같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복돋우려는 핵심 덕목인 ‘절제’(sophrosyne)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절제라고 하면 쾌락을 쫓는 욕망을 억누르고 규제하고 금지하는 식의 부정적이고 금욕적인 의미를 연상하기 쉽다. 이때 절제의 덕이 관여하는 욕망이란 이성적인 작용과 전적으로 대립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로서 가능하면 제한하거나 근절시켜야 하는 무엇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플라톤의 절제 개념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사회를 이루는 계층 가운데 통치자의 이성적인 지배에 복종해야 하는 생산자 계층에게만 요구되는 가장 하위의 덕목으로 여긴다면, 플라톤의 교육론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가장 잘못된 방식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플라톤은 절제란 “일종의 질서(kosmos)요, 어떤 쾌락과 욕망의 억제(enkrateia)”라고 말한다(국가4, 430e).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절제는 일차적으로 온갖 쾌락을 지나치게 쫓는 무절제의 상태와 반대되는 것으로, ‘어떤’ 욕망들을 억제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내포한다. 그런데 억제되어야 하는 어떤 욕망이란 “불필요한 욕구”로서 “필요한 욕구”와 구분 짓고 있음에 대해서도 또한 유념해야 한다.<sup>11)</sup> 수벌의 비유를 들어 몸에도 해롭고 지혜나 절제와 관련해서 혼에도 해로운 “불필요한 욕구들”에 지배될 때 혼이 타락됨을 경고하면서, 나쁜 욕구들은 굴종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혼 안에 “일종의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적절한 방식으로 충족됨으로써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상태가 되는 데 이로운, ‘필요한 욕구들’에 속하는 어떤 즐거움들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국가8, 559c-561c).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 절제란 오히려 “협화음 및 화성(和聲: harmonia)과 유사한” 것으로, 불필요한 욕구들을 분별하여 억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욕구들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품성 상태를 뜻한다(국가4, 430e). 따라서 그것은 금욕적 규제 위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 보다는, 여러 본성적 욕구들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절도 있게 추구되어 통일적 활동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때 플라톤의 절제 개념은 개인적 공동체적 삶의 다양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요, “적합한 것을 민감하게 평가하고,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이나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훌륭한 감식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Lamprecht, 1955/1992, p. 67).

11) 플라톤은 우리의 천성에 의해 갈구하게 마련인 욕구(epithymia)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두 부류로 나눈다. 전자는 우리가 제거할 수 없고 그것이 충족되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젊어서부터 단련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낭비적이고 해로운 것이다(국가8, 558e-559a).

그런데 이렇듯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절제의 품성이란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마땅히 쉽지 않으며 어릴 적부터 적절한 지도와 현명한 계획을 요하는 일인데, 이를 위한 플라톤의 제안이 바로 아름답고 우아한 시가를 통한 예술적 성격의 초등교육이다. 그에 따르면, 아름답고 훌륭한 품성을 닦은, 단순하고 절제된 말과 글과 리듬을 지닌 시가를 눈과 귀로 접하는 예술적 경험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절제의 덕을 복돋워준다. 이로써 아직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진리와 선의 인식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만, 참되고 훌륭하지 못한 것들은 옳게 싫어하고 추한 것들은 옳게 비난하고 미워할 줄 알며,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가장 민감하게 알아보고 칭찬하고 기뻐할 줄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된다(국가3, 401d-402a). 또한 필요하고 유익한 욕구에 속하는 즐거움은 적극적으로 고양되어 더욱 훌륭하고 고귀한 것들을 향해 이끌어야 하는 반면에, 불필요한 욕구들은 정도에 넘게 자극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적인 강제에 의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고 조절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아이들에게 절제의 덕을 복돋우기 위한 플라톤의 제안은 소극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인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훌륭하고 좋은 것에 친근해짐으로써 조화로운 질서를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습관들이는 일을 우선시한다는 뜻에서 적극적인 방식이요, 불필요하고 해로운 욕구들을 억제하고 근절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한 일에만 머무는 식의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술적인 초등교육을 통해 기르려는 절제의 덕, 곧 조화와 균형의 원리는 아름다움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요, 훌륭하고 좋은 것을 민감하게 알아보고 추구하는 미적인 감각적 인식과도 상통된다. 심미적 감수성과 감각적 판단력을 포괄하는 미적인 감각은 지각에 밝고 명료한 안목, 곧 제대로 보는 눈을 통해 예비적으로 이성적 인식을 준비시켜준다.<sup>12)</sup> 플라톤에 의하면, 미적인 감각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후에 순수하게 이론적인 이성적 인식 단계에 이를 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인지라, 그 논거를 접하게 되면, 그 친근성 덕에 그걸 알아보고서는 제일 반길 것”이며(국가3, 402b), 참된 실재와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미적인 감각적 인식은 영혼의 의지가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고무하고 촉진하며, 영혼이 올바르게 아름다운 것들을 관할하는 지혜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힘을 지닌다(김상봉, 2002, p. 56). 이런 의미에서 초등교육의 목적은 지나친 쾌락을 좇는 무절제한 사랑과 구별되는 뜻에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12) 여기서 플라톤의 교육 구상 전체에서 초등교육의 목적을 보다 상위의 중등교육의 목적과 대비해 볼 수 있겠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감각적으로 습관들이으로써 형성되는 미적인 인식이 초등교육 단계의 목적이라면, 그러한 바탕 위에서 순수하게 이성적인 논리 연역적 사유를 통한 과학적 학문적 인식에 이르는 것이 중등교육 단계의 목적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이성적 인식의 힘이 도야된 상태로서 혼의 헤아리는 부분이 일깨워진 상태인 ‘지혜’의 덕에 해당한다. 플라톤은 이를 위해서 생각을 자극하는 교과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학, 천문학, 기하학, 화성학을 순수하게 이성적 인식을 도야하는데 적합한 교과로 논의한다(국가7, 521d-531e).

향한 사랑의 기본성향을 길러주는 에로스의 이상(理想)과 근원적으로 연결된다. 올바른 사랑은 마음이 본질적인 선에서 벗어나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성을 다잡아 주는 양심의 뿌리 역할을 하고, 이성적 인식과 실천적 행위가 합일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연의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앞글, p. 40).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플라톤의 교육 구상에서 절제의 덕을 기르는 예술적인 초등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가의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시가교육이 이상 국가의 수호자 교육을 논하는 맥락에서 다루어진 점에서 수호와 통치를 담당할 잠재적인 지배계층을 위해 고안된 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본다(Curtis, 1975, pp. 7-8).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제의 덕이란 통치자의 지배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의미로서 주로 생산에 참여하는 하위의 피지배 계층을 길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선 후자와 관련되는 맥락을 살펴보자면,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대중에게 이런 것들이 절제의 가장 중대한 면면에 아니겠는가? 즉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반면, 주색이나 먹는 것과 관련된 쾌락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들로 되는 게 말일세.”(국가3, 389e) 여기서는 통치를 받는 대중에게 요구되는 절제를 말하는데, 개인과 국가 모두에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것과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자신의 욕구를 기꺼이 규율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통치자의 지배에 ‘순종하고 따름’이란 무조건적으로 강제된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절제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 부분간의 우의와 화합”을 이루어 해아리는(이성적인) 부분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반목하지 않는” 상태로 본다.(국가4, 443d). 이것은 지배에 합당한 통치자를 옳게 알아보고 기꺼이 순종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통치자의 지배에 복종하는 이들의 편에서 올바른 통치자를 감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아볼 줄 아는 기본적인 판단력이 전제될 때야만 실현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논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제는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협화음처럼],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全)음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일세. ....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이,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 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걸세. (국가4, 432a-b)

이렇듯 사회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절제란 각각의 성향들이 서로 참견하지 않고 본연의 제 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한마음 한뜻’(한마음: homonoia)이 되어 지배에 합당한, 한결 더 나은 쪽을 바르게 알아보고 합의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에게 절제는 지배하는 쪽이나 지배를 받아들이는 쪽이나 사회구성원 전

체 누구나가 지녀야 할 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술적 성격의 초등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이성적인 지혜의 덕이 중요하게 요청되는 최고통치자에게도 결코 소홀하게 간과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교육인 것이다.

요약해보면, 플라톤에게 초등교육의 목적은 영혼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욕구를 올바르게 규율하는 절제의 덕을 함양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성적 인식에 이르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절제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쁜 욕구들을 억제하는 소극적 방식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경험을 쌓아가며 습관들임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을 친근하게 바로 알아보도록 미적인 감각을 길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예술적 성격의 초등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절제’에 내포된 적극적인 의미는 모든 이들이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스스로를 규율하여 조화와 질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균형 감각이요, 보다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향해가도록 이끄는 올바른 사랑의 마음이다. “바른 사랑(eros)은 그 본성상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절제 있고 교양 있게(시가에 밝은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들”을 올바르게 길러주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선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국가3, 403a-c). 이제 이러한 초등교육의 목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 구성의 문제로 넘어가보자.

#### IV. 초등교육의 내용과 방법 구성의 원리

플라톤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사람의 혼 안에 훌륭한 성격(성품)들이 있게 된 데다, 이것들과 합치되고 조화되는 것들이 외모에도 있게” 되었을 때, 즉 영혼의 안팎이 아름다움의 “같은 원형에 관여하고” 있을 때라고 말한다(국가3, 402d). 그런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름다움에 관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시가에 밝은 사람”이요, 훌륭하고 좋은 시가가 지닌 교육적 힘에 의해 도야된 사람이다. 플라톤은 시가가 인간의 눈과 귀를 통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가는 인간 영혼의 욕구를 바른 음식으로 채워 절제의 덕을 기르게 해주고, 영혼의 열망에 우아함을 불어넣어 준다. 바르게 ‘사랑을 하는 사람’(erastes)과 ‘사랑을 받는 소년’(ta paidika)의 경우처럼 우아한 열망을 지니면 서로가 가진 질서 있고 아름다운 지혜를 쫓아 사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육체적 쾌락과 같은 무절제하고 옳지 못한 것들을 쫓아 사귀게 된다는 점에서, 플라톤은 잘 선별된 시가교육을 통해 조화와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사랑의 기본성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국가3, 403a-c).

결국 교육적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예술적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질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선별하여 미적인 차원의 조화와 균형감이 깃들게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 장에서는 시가의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플라톤이 제안한 견해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 구성을 위해 어떤 원리를 유추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가는 플라톤이 새롭게 창안한 것이 아니라 고대 희랍시대에 전통적으로 가르치던 교육내용이다. 『국가』에서 시가 교육에 대한 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안된 것보다도 더 나은 교육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와 함께 시작된다(국가2, 376e). 플라톤은 한편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교육내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습적으로 굳어져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퇴색된 측면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시가교육론은 전통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어떠한 본질적 가치를 되살리고 어떤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는지, 그것으로부터 현대적인 초등교육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보편적 원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당대의 시가교육은 설화나 이야기, 노래와 가락, 그림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내용이다. 그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문학과 음악, 회화와 연극 등 예술영역 전반을 포괄할 뿐 아니라 소재에 있어 역사와 지리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교과교육으로 볼 수 있다(국가3, 398d). 그런데 앞서 그의 예술비판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플라톤은 당대에 음송되는 많은 시가들에 대해 참된 실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감각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쳐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다.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는 보모나 어머니들이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가꾸어 주는 것” 이상으로, “설화로써 아이들의 마음(혼)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오늘날 그들이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은 버려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국가2, 377c). 왜냐하면 아이들은 “뭐가 숨은 뜻이고 뭐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번 갖게 된 생각들은 “좀처럼 씻어 내거나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설화를 선별하여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2, 378d-e). 따라서 어떤 시가가 어린이의 조화로운 기본성향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 선별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상의 엄밀한 기준이 필요하며, 엄격한 감독과 검열을 통해 기존에 활용되던 시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 2권과 3권에 걸쳐 당시에 음송되던 시가들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가의 선별 기준을 논의한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현대적 맥락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다섯 가지 준거로 정리해볼 수가 있다.

첫째 기준은 무엇보다 시가가 완전한 훌륭함의 원형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국가3, 391e).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저런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허구적’일지라도 가장 완전한 이상적인 원형을 올바르게 새겨주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신화 가운데 신들에 대해 때때로 나쁜 일도 할 뿐 아니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존재로 그려진 것을 문제시한다.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나쁜 것들보다 훨씬 더 적은 좋은 것의 원인”이며, 그러한 이상적인 완전성의 본을 현란한 즐거움을 쫓는 시인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2, 379c). 또한 웅졸하거나 거만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불경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나쁜 것 혹은 사악한 것에 대한 관대함이나 무신경(해이)을 심어주게 된다(국가3, 392a). 이렇게 가소성을 지닌 아이들은 주어진 현상들을 그대로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닮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고 친근성을 쌓아가는 점에서, 훌륭한 이 상적인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삼가고 순수하게 정화된 내용들을 들려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기준은 절제, 온순함, 인내, 용기와 같은 덕을 실제 삶의 실천적 행위로 드러내 보여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아무리 이성이 단련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성의 작용이 잠시 멈추었을 때 절대 없어지지 않는 불필요한 욕구들 중 일부는 꿈틀거리며 나타난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와 닿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상상 속에서 재현하고 동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덕목들에 익숙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을 습관화하여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상태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고난이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탄하거나 통곡하는 모습, 심한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들, 식욕이나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들은 배제하는 반면에, 자신이 처한 처지를 깨끗하게 참아내며, 만족할 줄 아는 인내심과 자족감을 표현한 내용이나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가를 초기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구분 짓는다(국가3, 386a-392c).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시가를 통해 어려서부터 나쁜 성격들에 대한 일체의 생생한 경험을 삼가고 좋은 성격이 표현된 구체적인 행위를 접함으로써, 아름답고 올바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레 키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3, 409a-b).

셋째 기준으로는 시가의 내용 못지않게 형식의 선별에서도 신중해야 하는데, ‘서사적인’ 구조를 지닌, 간접화법에 해당하는 이야기 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시가의 이야기 진행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시인 자신이 시 속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사건을 3인칭 시점에서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해설식’(narrative)의 단순한 이야기 진행, 시인 자신이 직접 각 인물들의 성격, 말투 등을 모방하여 스스로 말하고 연기하는 모방(mimesis) 형식, 마지막으로 양쪽 다를 겸한 이야기 진행으로 구분한다(국가3, 392c-394d). 표현형식의 특성상 무미건조할 수 있는 해설식보다 모방식은 청중들에게 동화의 효력이 크지만, 플라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것을 모방할 때에는 한 가지 것을 모방할 때처럼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모방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모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성향의 목소리나 표정들을 모방하는 과정은 사고방식까지도 그러한 성향을 닮게 하여

성격으로 굳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식 보다 딱딱하고 덜 재미있지만 영혼에는 훨씬 이로운 해설식을 이용한 간접 화법의 서사적인 형식을 권장한다(국가3, 394e-398a). 이것은 순간적 흥미를 낳는 산만하고 극적인 활동들 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지닌 서사적인 구성을 통해 질서 있는 교육형식을 갖추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기준은 시가의 음악적 형식에 관한 것으로서 되도록 다채로운 변화가 배제되고 순수하게 정제된 ‘단순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슬픔이나 한탄이 섞인 처량한 곡조인 혼성 리디아 선법과 고음 리디아 선법이라든가, 유약함과 게으름을 불러일으키는 이오니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의 조화로운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대신에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라도 깨끗하게 참아내는 용감한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모방한 도리아 선법과 모든 경우에 절제 있고 절도 있게 행동하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어조와 억양을 모방한 프리기아 선법만이 노랫말을 담는 그릇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가3, 398e-399c). 덧붙여 이러한 선법의 시가를 위한 악기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많은 현을 사용하여 모든 선법이 연주될 수 있는 삼각 현악기, 펙티스, 아울로스 등은 불필요하다고 여겼고, 리라와 기타라나 시골의 목부들을 위한 일종의 피리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았다(국가3, 399c-d). 리듬에 있어서도 온갖 것이 복합된 형식의 리듬보다는 우아하고 단순한 방식인 닥틸로스 시각과 이암보스, 트로카이오스 시각이 적절하며 이러한 리듬은 절제 있고 좋은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국가3, 400b-c).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미를 경험하는 이들은 참된 아름다움을 보다 쉽게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국가3, 399e).

다섯째 기준으로는 시가의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 내용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며 잘 부합되도록 ‘통일적인’ 구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의 말(노래말)에 시각(時脚: pous)과 선율(melos)이 따르도록 해야지, 말(노래말)이 시각(時脚)과 선율을 따르도록 해서는 아니 되네”라고 강조한다(국가3, 400a). 즉, 시가에서 리듬이나 선법과 같은 형식은 그 노랫말이라는 내용이 지닌 성격을 따르고 그 노랫말은 영혼의 성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혼의 성격을 담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3, 400d). 나쁜 성격이 나쁜 형식(리듬, 말씨 등)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를 접하게 되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하나의 큰 나쁜 것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인을 찾아 좋은 성격에서 생겨난 좋은 내용을 그에 부합하는 좋은 형식으로 잘 표현한 것들을 접하면 영혼은 내용에 있어서든 형식에 있어서든 모든 것에서 좋음을 감각적으로 알아보고 추구하게 된다.

이상에서 시가의 선별 기준을 통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플라톤에게 예술적인 초등교육의 내용과 방법 구성의 원리는 이상성, 구체성, 서사성, 단순성, 통일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준은 현대적인 초등교육 맥락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로

재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첫째로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교과이든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선별함에 있어 좋음과 나쁨이 뒤엎혀 추하기까지 한 현실성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완전한 훌륭함의 본을 보여주는 이상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로 초등교과는 추상적인 개념적 수준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 감각적으로 와 닿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우선시하며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로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적 원리로서 산만하고 극적인 활동적 구성 보다는 단일하게 절제된 서사적인 이야기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흥미를 이끌기 위해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복잡다단한 방법을 쓰기 보다는 소박하고 절제된 단순성으로 특징짓는 경험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내용들의 분절된 다양성 보다는 내용과 형식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예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가능성을 기대하며 플라톤 사상을 탐구하였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시가(詩歌)를 통한 초기교육과 모방으로서의 예술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진정한 실재의 모방으로서 예술이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감각적 친근성을 통해 참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향을 발달시켜주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을 지닌다. 둘째, 시가교육론을 통해 본 초등교육의 목적은 이성적 인식 이전에 미적인 체험을 통해 ‘절제’의 덕을 함양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질서와 균형 감각의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욕구를 스스로 규율하고 보다 고귀한 아름다움을 갈망하도록 올바른 사랑의 마음을 길러주는 일이다. 셋째,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 구성을 위해서는 시가의 교육적 가치 준거에서 유추해 볼 때, 이상적인 모범, 구체적인 사례, 서사적인 구성, 단순한 형식,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을 고려해야 한다.

플라톤에게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최고선의 인식을 통한 영혼의 완전한 조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수하게 이성적인 인식은 초등교육 단계에서 미적인 감각의 도야를 통해 기본 바탕의 성향을 올바르게 형성해갈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교육의 시작 단계를 말하면서, “맑은 것은 맑은 것을 불러들인다.” 라는 헬라스 속담을 빌어 플라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결국 영혼이 익숙해져서 이끌리고 닮고자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국가3, 400d). 그렇기에 유연한 어린이 시기에는 절제의 덕과 올바른 사랑을 기를 수 있도록 아름답고 훌륭한 내용과 형식의 예술적 체험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풀밭의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풀밭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주위의 모든 사물에서 아름답고 선한 본을 닮은 것들을 눈과 귀로 접하면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감각적 친근성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견해를 현대적 의미로 읽어보자면, 무엇보다 풀밭의 비유처럼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자 정선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학교의 공간과 시간 구성 전체에 대해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과 준거에 비추어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어린 시기에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서 보다 감각적 친근성을 통해, 나쁜 행위의 규제를 통해서 보다 좋은 성품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이 이끌리며 기본성향이 형성된다는 통찰은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플라톤의 초등교육론은 위계적인 국가의 수호자를 기르는 과정의 첫 단계로 제시된 것이지만, 현대의 민주적인 사회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초등교육 구상으로 적용 가능해 보인다. 특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깊게 새겨보면, 조화와 균형 감각이 갖추어진 보통 사람들의 기본 바탕을 길러주는 초등교육이 전제될 때라야 대의 민주제의 이상을 실현할 최선의 통치자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선택하고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의 초등교육론은 현대적 맥락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성격의 초등교육이 충실하게 실현될 때라야만 민주적인 좋은 공동체가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맥락에서 초등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해 플라톤 사상은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며, 조화와 균형의 예술적 성격이 간과되는 초등교육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청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쟁점은 주로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중요하고 절실한 논의 주제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의 발달을 위해 요청되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해 요청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기르는 과업에서 지혜와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의 초등교육 현실에서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통제 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고 예술적인 풍요로움에서 멀어질수록, 기계적인 교과학습 위주의 경쟁적 풍토가 초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린이의 감각적 경험이 조화와 균형을 잃어갈수록, 또한 황폐한 학교 경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어린 아이 시기부터 사이버 매체 등을 통해 잡다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의 홍수 속에 젖어드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플라톤이 제안하는 초등교육의 예술적 성격은 재음미해 볼 가치를 지닌다.

## 참 고 문 헌

- 고경화(2004). 미메시스와 유아의 모방교육을 위한 그 의미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69-85.
- 권동택(2003). 초등교육의 관점에서 본 기초교육의 의미. **초등교육연구**, 16(2), 41-58.
- 구분옥(2007). 니체의 미학과 ‘삶’중심의 예술교육론. **초등교육연구**, 20(2), 1-25.
- 김상봉(2002).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서울: 한길사.
- 김혜숙, 김혜련(1998).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종국(2004). 초등교육 개념화의 맥락적 접근. **초등교육연구**, 17(2), 53-76.
- 박종국(2008). 초등교육의 과정철학적 접근: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2), 1-25.
- 박종현(2001). **헬라스 사상의 심층**. 서울: 서광사.
- 서승원(1992). 플라톤의 시와 예술에 대한 비판: 국가 제10권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6, 61-95.
- 엄태동(2003). **초등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학지사.
- 양은주(2007). 프래그머티즘 미학에 기초한 예술적 교사 이해: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40, 109-137.
- 오운심(1996). 플라톤 예술론과 예술과 교육. **초등교육연구**, 10(1), 119-133.
- 윤근영(2007). 초등교사의 발달단계와 수업전문성과의 관계. **초등교육학연구**, 14(2), 59-76.
- 윤병태(2001). 전통적 예술관에 대한 헤겔의 비판적 수용. **철학연구**, 54, 203-220.
- 이명준(2001). **유토피아와 교육**. 서울: 문음사.
- 임영방(2003). **미술이 걸어온 길**. 서울: 학교재.
- 정재결(2003). 한국 초등교육의 이념. **초등교육연구**, 16(2), 59-86.
- 정혜영(2001). 독일 ‘초등학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 초등교육학 정립에 주는 시사. **초등교육연구**, 14(3), 225-241.
- 진성희, 나일주(2009). 초등 교수역량요소 도출 및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간 교수역량 인식 비교. **초등교육연구**, 22(1), 343-368.
- 한명희(2002). **교육의 미학적 탐구**. 서울: 집문당.
- Brubacher, J. S. (1966).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Y: McGraw-Hill Book Company.
- Brumbaugh, R. S. and Lawrence, N. M. (1963). *Philosophers on education: Six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western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Curtis, S. J. (1975).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4th ed.) London: University Tutorial

Press.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The Later Works*, vol.10.

Greene, M. (1973). *Teacher as stranger: Educational philosophy for the modern ag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Guthrie, W. K. C. (1981). **희랍 철학 입문: 탈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박종현 역). 서울: 종로서적. (원저 *The Greek philosophers--From Thales to Aristotle*, 1960)

Hansen, D. (2005). Creativity in teaching and building a meaningful life as a teacher.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9(2), 57-68.

Lamprecht, S. P. (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외 공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저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1955)

Nettleship, R. L. (1989). **플라톤의 교육론** (김안중 역). 서울: 서광사. (원저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1935)

Plato (1997). **플라톤의 국가(政體)** (박종현 역주). 서울: 서광사.

Plato (2003). **향연: 사랑에 관하여** (박희영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Randall, J. H. (1960). *Aristotl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eble, A. (2002). **서양교육사** (정영근 외 공역). 서울: 문음사. (원저 *Geschichte der Padagogik*, 1951)

Sheppard, A. (2001). **미학개론: 예술철학입문** (유호전 역). 서울: 동문선. (원저 *Aesthetics: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art*, 1987)

Shusterman, R. (2003). Pragmatism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and aesthetic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2, 403-412.

• 논문 접수 : 2009년 9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10월 5일 / 게재 승인 : 2009년 10월 23일

## ABSTRACT

### The Aesthetic Nature of Elementary Education Based on Plato's *Republic*

Eun-Joo Yang(Assistant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un-Jeong Lim(Teacher, Beopseongpo Elementary School)

Reflecting upon the problematic situations of elementary education as having been affected by uniform competitive social conditions, we need philosophical inquiry on the essential nature of education for children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explores Plato's philosophy of art and education with a view to the possibility to illuminate the artistic nature of elementary education, expecting to provide us with critical insights for re-directing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practices. For this purpose, we deal with three themes. First, we deal with analytically Plato's philosophical thoughts on art as mimesis, which shows that the genuinely true art is to re-present not the sensible things but the ideal being and thereby cultivating the loving spirit of eros so as to desire and look after the beauty. Secondly, we examine Plato's educational theory of mousike in relation to his theory of art, which indicates that temperance as fundamental disposition toward harmonious unity comprises the educational aim for the primary stage of human development. Thirdly, we explore Plato's critical ideas to discriminate the various substances and forms with respect to their educative values, which suggests perceptually good experience preparing for logical reason and artistic simplicity in form and matter as the criteria for curriculum construction in elementary education.

Key words : the nature of elementary education, Plato, art as mimesis, education by mousike, aesthetic education